

수입차 전문 수리
블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진주시 덕진구 인우동1가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 / 행정사 조 기 문

(우)54859 전북특별자치도 진주시 덕진구 민성동4로 55, 8층 805호(민성동, 오케이타워1기)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Fax: 063-223-8742 E-mail: jokimoon@naver.com

2026년 3월 18일(수) 제 3282호

지적에도 제자리...공유재산 심의 '유명무실'

이수진 도의원, 도정질문서
공유재산 심의기준 개선 촉구
공시지가 상승에도 소극 조정
"도민 자산 통제 기능 약화" 지적



이수진 도의원

도의회 이수진 의원은 11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북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기준 문제를 지적한 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이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검토 과정, 도정질문 답변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 공유재산관리계획회 의회 심의 기준액이 취득 20억 원, 처분 10억 원으로 설정되어 전북의 재정 여건과 공유재산 거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기준 재검토와 조례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서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회 의회 심의를 위한 기준 금액이 대도시 중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2025년 도의회 심의가 세 차례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실정에 맞는 금액 기준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서 17개 시·도가 시령령 개정 전 기준 금액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해 운영 중이다"며, "기준금액의 상·하향 동향을 파악해 기준 변경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검토 과정과 도정질문 답변에서도 공시지가 상승, 낮은 부결률, 업무 부담 증가, 타 시도 동일 기준 운영 등을 이유로 현행 기준 조정에 신중한 입장을 반복했다.

이수진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관리계획 제도의 운영 취지를 직접 묻자, 도지사가 "적어도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의회가 직접 관여해서 심의를 하라는 취지이다"라고 답한 점을 언급하며, "그



농어촌기본소득 전북도는 17일 순창군 인계면에서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장수·순창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 선순환 전략' 구축 '지역소비 선순환체계 구축 현장감담회'를 열고 전략을 논의했다.(관련기사 2면) <사진=전북자치도>

렇다면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상황일수록 중요한 재산에 대한 의회 심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점검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문제는 단순한 자가 상승이 아니라 현행 기준 금액이 전북 현실에 비해 높게 설정돼 있다는 점이다"라며 "중요한 것은 다른 시도와 같은 기준을 유지하는지가 아니라, 전북의 재정 여건과 공유재산 규모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025년 전북도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은 총 23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도의회 의결을 거친 건수는 3건뿐이었다. 최근 5년간 전체 취득·처분 156건 가운데 도의회 의결은 35건에 그쳤다.

이와 함께 2026년 1월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대상 현황'에 따르면, 2025년 취득 사업은 현행 20억 원 기준에서는 3건, 15억 원 기준에서는 6건, 10억 원 기준에서는 8건으로 집계됐다.

이수진 의원은 "이 같은 수치만 보더라도 현재 기준이 의회의 심의 기능을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기준 금액에 따라 의회의 심의 대상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이 확인된

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낮은 부결률과 업무 부담 증가 논리에 대해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한 장치라 아니라 도민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의회의 사전 통제 장치이다"라며 "업무 부담을 심의 기준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한병도 의원 "검찰의 시대 끝났다" "중수청·공소청법 19일 처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처리'와 "오늘은 검찰 시대의 시대 끝내고 국민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70년 낡은 기득권의 사슬을 끊어내고 오직 국민을 위한 사법질서를 확립하려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끝으로 이수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했지만 돌아온 것은 기준 재검토가 아니라 기준 유지 논리의 반복이었다"라며 "공유재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공공자산인 만큼 전북 실정에 맞게 의회의 심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준 재검토를 계속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정철 기자



한병도 원내대표

당정청은 이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최종 합의하고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는 "지난 두달간 6차례에 걸친 의원총회와 심의는 공청회, 당 지도부와 행안위, 법사위 의원님들 그리고 정부가 밤낮없이 이어온 치열한 소통은 속의 민주주의의 지력을 증명하는 시간이었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길은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라고 평가했다. <2면에서 계속>

"학생 수업 예산 깎아 올림픽행 전북교육청 출장 부적절"

<속보> 전교조 전북지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전북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이 밀라노 동계올림픽 현장을 방문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 체육 관련 예산이 사용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올림픽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로 학생선수가 출전하는 전국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과 달리 교육청의 직접적인 책무와는 거리가 있다"며 "실제로 다른 시도 교육감들이 선수 격려를 이유로 올림픽 현장을 방문했다는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이번 방문은 교육청의 통상적인 역할 범위를 벗어난 이례적인 행보"고 성토했다.

특히 "올해 전북교육청은 학교 학습준비물 예산을 50% 삭감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실질적 교육운영비가 부족하고, 수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준비물을 마련하는 일조차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결정한 이번 해외 출장은 예산 사용에



유정기 권한대행

대한 책임과 신중함이 결여된 판단이며, 예산 집행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마저 무뎠던 모습이다"고 비난했다.

또 "전북교육청은 이번 출장의 결정 과정과 목적, 예산 사용 내역을 철저히 감사하고 학생 체육 관련 예산이 해외 출장에 사용된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번 출장 결정과 예산 사용과 관련해 도민과 교육공동체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교육청 간부의 국외 출장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출장 판단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통합돌봄 본사업 앞두고 점검

전북도는 오는 27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시군 추진상황 점검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는 사업 시행 직전 미비사항을 보완해 통합돌봄 제도가 지역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방상윤 도 복지여성보건국장 14개 시군 통합돌봄 소관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군별 자체점검 결과와 시범사업 운영현황, 추진계획,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조례·조직·인력 등 제도 기반 정비 상황과 읍면동 전달체계, 지역특화서비스 준비현황 등 도 점검했다. 아울러 시행 초기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도와 14개 시군은 전 시군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까지 수행하면서 본사업 시행 전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운영체계 안정화에도 힘써왔다.

또 재택의료센터 운영, 퇴원환자 지역 사회 연계 협력 등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기반을 갖추고 담당자 교육, 정보시스템 정비, 지역특화서비스 개발 등 제도 시행 전 준비사항도 이행하고 있다.

도는 보고회 결과에 따라 준비가 미흡한 시군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법 시행 이후에는 읍면동 통합돌봄 창구와 수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초기 운영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방상윤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시군과 긴밀히 소통하며 시행 전까지 준비 상황을 끝까지 챙기고, 시행 이후에도 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펴 의료·요양·돌봄서비스가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체계를 완비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한계를 넘어
장수군에서!

JANGSU TRAIL RACE

70K 38K-J 38K-P 20K 5K 4K-VT

JANGSU TRAIL RACE
장수군 JANGSU COUNTY

전북도,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소비 선순환' 시동

도, 17일 순창서 현장간담회 개최 장수·순창 맞춤형 실행전략 논의 가맹점 부족 해소·접근성 강화 농산물 소비 선순환체계 구축

전북도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지역소비 선순환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17일 순창군 인계면 다시청춘관에서 장수군·순창군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 현장간담회'를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2월 장수군과 순창군에 지급된 61억 원 규모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소비와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맹점 부족 문제 해소 ▲지역 농산물 소비 선순환 ▲돌봄·문화 연계 생활서비스 확대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면 지역에서 기본소득 사용이 어려운 가맹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장터'와 배송서비스

등 소비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한다.

장수군은 문화·복지 프로그램과 장터를 결합한 '행복싸롱 이동장터'를 통해 오지마을 주민들이 생활필수품과 농산물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로컬푸드 직매장과 플라마켓을 결합한 'RED-FOOD 직구 마켓' 등을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순창군은 농협과 자활센터가 협력하는 '온정장터'를 운영하고, 버튼 하나로 주문이 가능한 'AI 로컬 버튼 서비스'와 마을 배송체계를 도입해 면 지역에서도 기본소득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본소득이 지역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농산물 소비 선순환 체계도 마련한다. 장수군은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가맹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장수형 선순환 소비 인증제'를 도입하고, 온라인 쇼핑몰 '장수몰'과 연계한 기본소득 결제 및 농산물 꾸러미 구독 서비스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순창군은 지역 농산물 사용 비중이 높은 업소를 '순창 지킴이 착한가게'로 지정하고 추가 캐시백을 제공하는 한편, 로컬푸드 직거래장터와 온라인 장바구니



<사진=전북도>

니 마켓 등을 운영해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기본소득을 단순 소비 지원을 넘어 문화·돌봄·생활서비스와 연계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장수군은 영화관과 연계한 '기본소득 시네마 데이', 찾아가는 문화 스톱버스, 집수리 지원과 이동 빨래방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주민자치 조직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활용을 돕는 마을리더 운영과 소비지도 제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창군은 생활품 전달과 말벗 서비스를 결합한 '온(ON)돌봄 도움센터'를 운

영하고, 의료·돌봄·관광을 연계한 '순창 한바퀴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소득을 활용한 생활서비스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도와 장수군, 순창군은 이날 제안된 의견을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 실행계획을 보완하고 정책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의 마중물이 되려면 현장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정적 집중의사를 피력했다. /장정철 기자

<1면에서 이어서>

이어 "우리는 기존 정부안에 대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가 재입법예고했던 안을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바 있다"며 "이후에도 속의를 더해 단일 합의안을 수정 당론으로 재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본질을 잊고 명칭의 유지여부나 책임용 방식 같은 일부 논쟁으로 개혁의 큰 물줄기를 돌리려 해서 안된다"며 "(야권의 반대에도)민주당은 '후퇴'라는 가짜 프레임으로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며 강력한 입법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또 "이제부터는 행동의 시간"이라며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수정 초안 의지를 강조했다. 18일 양 상임위에 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공소

"검찰시대 끝, 국민시대 시작" 19일 본회의 처리강행의지 "필리버스터 시종결" 경고

청벌 의결을 마무리하고, 19일 본회의의 상정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에도 엄중히 말씀드린다"며 "만약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국회법에 따라 토론종결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한 대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국 주권자의 분노 앞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한 치의 타협 없이, 머뭇거리 없이 치밀한 결집된 의지로 본회의 통과라는 마침표를 찍겠다"고 선언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 AI·드론 등 확대 7개 시군 352명 대상 운영 교육 후 취업 '원스톱 연계'

전북도가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은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기술교육을 실시해 미취업자를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교육 종료 후 관련 기업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임실, 고창 등 도내 7개 시·군이 참여해 총 352명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사업비 14억 원이 투입된다.

각 시·군은 관내 기술교육 훈련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2~6개월 과정의 단기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종료 후에는 관련 기업 취업 연계와 함께 6개월간 사후관리를 병행한다.

특히 올해는 참여 시군을 6곳에서 7곳으로, 훈련기관을 15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해 20개 과정, 352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렸다.

아울러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AI 기반 전기설비, 드론, 스마트 자동화 설비 등 신산업 분야 교육 과정을 신설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미래형 핵심 기술인력 양성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이원택,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포함 추진

동학농민혁명 포상 법안 발의 제2차 동학 참여자 대상 명시 국권침탈 시점 1894년 규정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순국자를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에 명시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이 되는 '국권침탈 전후'의 시점을 1894년 7월 일제의 경복궁 점령 사건(갑오왜란)으로 명확히 하고, 1894년 9월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순국자를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범주에 포함하여 건국훈장·건국



이원택 의원

포장 및 대통령 표창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까지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권침탈의 시점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일제에 맞서 싸운 항일투쟁인에 도 독립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1894년 9월 전개된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본군의 경복궁 무력점령과 내정 간섭 등 일제의 침략에 맞서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항일무장투쟁의 성격이 분명한데도, 현행 제도에서는 독립유공자 포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은 전북 고부에서 시작된 역사적 사건으로, 전북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그 정신이 처음으로 타올랐던 곳"이라며 "이 정신은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독립정신의 뿌리로 이어졌다"라고 강조했다.

무장투쟁이었음에도 현재까지 독립운동으로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라 "이제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선언적으로 기리는 수준을 넘어, 법과 제도를 통해 독립운동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정립하고 국가 차원의 예우 체계를 완성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도, 고유가 부담에 전북 화물업계 지원 논의

화물운송업계 현장 간담회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보조금 지급률 70% 상향 추진

전북도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화물운송업계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17일 전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서 화물운송업계 현장 간담회를 열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화물운송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유가 안정 대책과 정부 지원 정책의 지속적

인 운영 필요성을 건의했다.

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의 화물차 지원정책도 함께 안내했다. 현재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교통·물류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화물차 유가연동보조금(경유) 지급기간을 당초 2월 말에서 4월 말까지 연장했으며, 3월 1일부터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추가로 개정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률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통한 지원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전북도는 이에 발맞춰 지급기간이 연장된 유가연동보조금이 현장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추경이 확정될 경우 도내 화물운송업계가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 가운데 도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검토해 반영할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화물운송업계의 어려움을 곧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직결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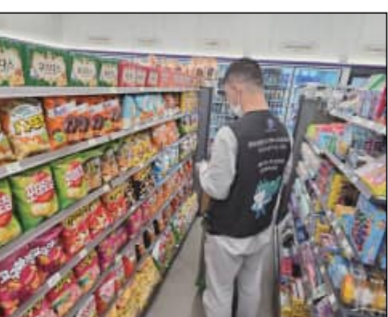
전북도, 발달장애인 정규직 취업 연계 '성공'

휴게소 직업훈련 2명 취업 성공 민관 협력 일자리 모델 구축

전북도가 운영하는 휴게소 현장 직업훈련 프로그램에서 발달장애인 2명이 정규직 취업에 성공하며 민관 협력 고용 모델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도는 익산 미륵사지 휴게소에서 진행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인 훈련생 2명이 정규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전북도와 한국도로공



<사진=전북도>

사 전북본부, 사회복지법인 창혜복지재단, ㈜한남상사가 공동으로 추진한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협력 사업의 결실로 도는 지난해 8월 이들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 기반 마련을 목표로 휴게소 현장을 활용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사업을 이끌었다. 도는 행정 지원과 기관 간 협력 조율을 맡았으며, 창혜복지재단은 직무 분석부터 사전 교육, 현장 적응 지원까지 훈련 전반을 담당했다. 휴게소 운영사인 ㈜한남상사는 실습 환경 제공과 급여 지급을 통해 실질적인 직무 경험의 장을 열었다.

도 관계자는 "민관 협력을 통한 발달장애인 일자리 모델을 더욱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새로운 대한민국 농업

1989 신농본이

2025 농심천심

농부의 마음이 하늘의 뜻

농업의 가치 국민과 같이

이제 농심천심의 길로 나아갑시다

농협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 지부장 이 미 정

고창농협 조합장 유 덕 근 선운산농협 조합장 김 기 욱 해리농협 조합장 김 갑 선

대성농협 조합장 박 윤 규 흥덕농협 조합장 백 영 중 고창부인축협 조합장 오 교 울

남관우 시의장,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 촉구

대한민국시군자치구회의의장협, 남 의장 촉구 건의안 채택

남관우 전주시의장은 제273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전북지역 보훈대상자 건강권을 침해하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 위한 보훈병원 설립을 촉구했다.

17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회의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는 경상남도 밀양시의회에서 열린 제273차 시도대표회의를 가졌다.

이날 전북대표회장 남관우 전주시의장이 제안한 '전북권 보훈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보훈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남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전북에는 약 32,000명의 보훈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지만 보훈병원이 없어 보훈의료 공백이 심각한 지역"이라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남관우 전주시의장은 제273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전북지역 보훈대상자 건강권을 침해하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 위한 보훈병원 설립을 촉구했다

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보훈대

상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보훈병원 조속 설립 △보훈병원 설립 전까지 전북 공공의료기관 대상 준보훈병원 지정 적극 검토·추진 △위탁병원 이용자에게도 보훈병원과 동일 수준의 법정 비급여·약제비 지원 제도 개선 △지역 실정을 반영한 보훈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 수립과 예산·인력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남관우 의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말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되는 의료지원으로 완성돼야 한다"며 "보훈병원 설립과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안은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가보훈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전주시 공동근로복지기금 1호' 운영

중소기업 근로자복지 격차해소

까지 6년간 △지자체 6억원 △HS 효성첨단소재 15억원 △중소기업 6억원을 각각 출연한다.

전주시가 '전주시 공동근로복지기금 1호' 운영에 나선다.

여기에 정부 지원금 18억원을 더해 총 45억원 규모의 복지기금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 공동근로복지기금 1호' 운영은 대·중소기업 간 고착화된 복지 양극화 해소와 중소기업 근로 여건 개선 등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기금 운영에 따라 올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250명을 대상으로 노동절과 명절 등에 연간 100만원 상당의 복지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맞춤형 복지 제도를 지자체와 기업이 함께 분담하는 상생 모델로 구축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근로자 1인당 50만원 출연만으로 전주시와 정부 지원이 더해져 출연금의 두 배에 달하는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현장 근로자들의 복지 체감도가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이날 중 '탄소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안'에 전주시 출연금 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을 통해 우수 인재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해 활력 넘치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4월 17일까지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에 응모해 정부 지원금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전북도 및 HS효성첨단소재(주) 참여 중소기업들과 함께 '전주시 탄소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해 올해부터 오는 2031년

전주시 남부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첫삽'

17일 중인동 소재 100여대 규모 분소 신축

전주시가 전주 남부권 농업인들의 노동력과 경영비 부담을 줄여줄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신축하기 위한 첫 삽을 떴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 강세권 소장은 17일 전주 남부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중인동 소재)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시는 다변화된 농업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중인동에 분소를 신축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19년부터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전주농협을 임차해 제공했지만 공간 부족으로 인해 기중 확대나 안전 사용 교육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다변화된 농업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중인동에 분소를 신축하기로 결정했다.

착공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 시의원, 도의원, 전주시설공단 이사장, 농업인 단체장, 지역 농업인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친환경 현수막 의무화 탄소중립 실천

시·휴비스·전북옥외광고협회 다시봄 협약 체결

17일 전주시는 (주)휴비스, 전북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 새활용센터 다시봄과 함께 친환경 현수막 사용 의무화 및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등 전주시 산하 8개 출연기관도 동참해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확산과 공공부문 친환경 전환에 뜻을 함께 했다.

시는 탄소배출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폐현수막 재활용 기반을 마련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과 자원순환 실천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휴비스는 친환경 소재의 가격 경쟁력과 품질 확보, 소재 공급과 제품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는 현장에서 친환경 현수막의 확산과 정착에 협력기로 했다. 새활용센터 다시봄은 시민 참여형 교육과 홍보활동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시는 협약을 계기로 이달부터 시 산하 전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현수막과 행정용 게시대에 적용하는 모든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 현수막으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시는 공공부문 친환경 전환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해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에 힘써 지역기업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원순환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국제교류협력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전략적 글로벌 협력으로 세계지방외교 거점 전지구축'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전주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에 전략적 지방외교 추진체계 구축과 선도적 표준모델이 마련된다.

연구는 전주시 글로벌도시 추진 조례 제4조에 따라 추진됐다.

류 동향 조사 △글로벌 도시 전주의 미래 비전 및 전략 제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국제교류협력 중장기 세부 계획 수립 등이다.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윤동욱 전주시 부시장, 전주시 글로벌위원회 위원, 관련 부서 관계자, 연구 수행기관인 전주시정연구원 관계자 등 약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전주시정연구원은 △지방외교 통합거버넌스 구축 및 글로벌 교류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시 현안 해결 △글로벌 야են다 다변화에 따른 협력 패키지화 △글로벌 브랜드 플랫폼 고도화 등 전략을

시는 오는 6월 연구를 완료한 뒤 결과 보고회를 거쳐 전주시 국제교류협력 중장기 계획을 확정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소방차 1분 지연 시민 생명 직결 방재차량 강제처분 강화 계획 수립

전주덕진소방서 권기현 서장은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제 전주덕진소방서는 현장대원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현장 지휘관과 119상황실 간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이날 보고회에서 전주시정연구원은 △지방외교 통합거버넌스 구축 및 글로벌 교류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시 현안 해결 △글로벌 야엔다 다변화에 따른 협력 패키지화 △글로벌 브랜드 플랫폼 고도화 등 전략을 제시했다.

시는 오는 6월 연구를 완료한 뒤 결과 보고회를 거쳐 전주시 국제교류협력 중장기 계획을 확정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한 소방차 진입 지연 최소화화 재난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차량 영상과 상황관제시스템을 활용해 강제처분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권기현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소방차의 1분 지연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제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산업단지 '천원의 아침밥' 근로자 격려

기업·단체 기부금 3200만원 후원

전주시가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건강한 하루 지원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천원의 아침밥' 근로자 격려는 17일 08시 팔복예술공장 카페씨니에서 마련됐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오는 12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금요일 총 158회에 걸쳐 운영된다.

특히 사업은 (주)테크카본 2000만원, (주)휴비스 1000만원, 공무원노동조합 200만원 등 지역 소상공인들이 동참하며 총 3200만원 기부금을 후원했다.

를 실시해 메뉴와 배부 수량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업 운영 주체인 (사)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강동오 회장은 "향후 이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

현장을 찾은 우범기 전주시장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환경 조성을 위해 시에서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병원 초고해상도 최첨단 CT 도입

미세 병변 정밀 진단 초저선량 촬영 방사선 안전성 한층 강화

전북대학교병원은 최상위 CT 장비 '에퀼리온 원 인사이트(Aquilion ONE INSIGHT, TSX-308A)'를 도입했다.

다. 인공지능 기반 영상 재구성 기술인 AiCE(Advanced Intelligent Clear-IQ Engine)와 Silver Beam 기술을 적용해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 했다.

'에퀼리온 원 인사이트'는 초고해상도 재구성 기술 '피크(PIQE)'를 탑재해 기존 CT보다 더욱 정밀한 영상 구현이 가능한 최첨단 장비다.

특히 방사선에 민감한 소아 환자로 초저선량으로 검사가 가능하다.

피크 기술 탑재는 미세 구조를 정밀하게 보강해 검출기의 최대 해상도를 활용하도록 설계된 기술이다.

또 한 번의 회전만으로 심장 전체를 촬영할 수 있어 심·뇌혈관 질환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도 유리하다.

기존에는 심장 검사에 제한적으로 적용됐으나 이번 장비에서는 폐와 복부 검사까지 확대 적용됐다.

환자의 검사 위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오토 포지셔닝(Auto Positioning) 기능을 통해 검사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불필요한 접촉을 줄여 감염 위험도 낮출 수 있다.

이들 통해 영상의 노이즈나 방사선 선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기존 CT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작고 미세한 병변을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질환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자동 검사 범위 설정 기능이 더해져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과 검사 정밀도 역시 향상됐다.

방사선 노출 안전성도 한층 강화됐

/김영태 기자

'2025년 전북 우수 농축협 시상식' 개최

27개 농축협 참석 "농업인 실의 증진 위해 전진할 것"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은 17일 '2025년 우수농축협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은 2025년 종합업적, 상호금융, 경제사업 등 각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전북 27개 농축협이 참석해 축제를 함께했다. 이날 '종합업적 평가'에서는 농축협 경제, 신용, 교육 지원 사업 전반에 걸쳐 뛰어난 실적을 거둔 13개소 농축협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종합업적 평가' 수상자 최우수상에는 봉동농협(조합장 김운회), 삼례농협(조합장 강신학), 광활농협(조합장 임영웅), 정읍원예농협(조합장 이대진) △우수상(2위)에는 소양농협(조합장 유해광), 금마농협(조합장 백나진), 성당농협(조합장 허정진), 남원축협(조합장 한경석),

익산원예농협(조합장 김봉학) △우수상(3위)에는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 공덕농협(조합장 문용수), 익산군산축협(조합장 심재집), 임실치즈농협(조합장 이창식)이 수상했다.

'상호금융대상'은 각종 신용사업의 종합 평가로서

최우수상 용진농협(조합장 이중진), 정읍원예농협 △우수상(1위) 공덕농협(조합장 문용수),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 무진장축협(조합장 송대근) △우수상(2위) 봉동농협, 부안중앙농협(조합장 신정식), 광활농협, 남원축협, 남원원예농협(조합장 김용현) △우수상(3위) 무주농협(조합장 광동열), 소양농협, 동진제농협(조합장 최진오) 성당농협이 수상했다.

축산·경제사업 부문 수상 농협은 조사료 사업부문 대상 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김창수) △농업경제사업 대상 최우수상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일) △산지온라인 사업 연도대상 최우수상 익산원예농협 △농협판매대상 우수상 익산원예농협, 오수관촌농협(조합장 정철



<사진=전북농협>

석, 삼례농협, 선운산 농협(조합장 김기욱) △농산물 도매유통 연도대상 장려상 구천동농협 △지도사업대상 전국 농촌현 1위 고산농협(조합장 손병철), 지역우수 소양농협, 성장우수 계화농협(조합장 이석훈), 회현농협(조합장 김기동)이 수상했다. 김성훈 전북 총괄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

지 않고 농업인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준 전북농축협 임직원분의 진심이 담긴 결실을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농심에 진심, 든든한 전북 농협으로 하나돼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인 실의 증진을 위해 함께 전진할 것"을 다짐했다. /정소민 기자

페이퍼코리아, 문성운 신임 대표이사 선임

구매팀장~물류본부장 역임



문성운 대표이사

페이퍼코리아 대표이사로 문성운(58 현) 페이퍼코리아 구매물류 본부장이 선임됐다.

페이퍼코리아는 지난달 3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문성운 페이퍼코리아 구매물류본부장을 대표이사

로 선임했다. 문성운 신임 대표이사는 군산 제일고등학교 출신으로 전북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했으며, 1993년 페이퍼코리아에 입사해 구매팀장을 거쳐 구매물류본부장까지 역임한 '정통 페이퍼코리아 맨'으로 알려졌다.

문성운 신임 대표이사는 "과거의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도를 통해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사 이래 지난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듯이 본업인 제지업은 물론, 공장이전으로 진행 중인 부동산개발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들과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경영환경개선 지원

오는 27일까지 신청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이 운영하는 전북소상공인 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는 '2026년 전북민생솔루션 성장솔루션(경영환경개선)'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전북민생솔루션의 성장솔루션 단계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의 사업장 내·외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35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간판·어닝 교체 △전기·조명 공사 △노후 주방·환풍기 교체 △도배·장판 △메뉴판 제작 등 사업장 환경 개선 비용을 업체당 최대 200만원(부가세 제외)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이며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우편 접수

도 가능하다.

신청서 양식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jbba.kr) 또는 전북소상공인 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www.jbso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도는 도내 소상공인의 다양한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전북민생솔루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민생솔루션은 콜센터(1588-0700)와 온라인 민생문고고를 통한 상담솔루션,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 교육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현장솔루션, 그리고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솔루션으로 구성된 단계별 지원체제다.

윤여봉 원장은 "이번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이 경기 침체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중기부가 유망 외국인 창업가를 지원합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 사업화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 중기부는 오늘부터 '2026년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외국인 창업기업을 모집한다.

사업은 혁신적인 외국인 창업가 및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창업과 사업화를 지원해 한국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여기업의 편의를 위해 모집공고부터 신청·접수 및 선정평가까지 모든 절차를 영어로 진행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사업화 자금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 연계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된다.

사업화 자금은 평균 5천만원(최대 8천만원) 규모이며 제품·서비스 고도화, 사업모델 현지화, 지식재산 확보, 마케팅 등 창업기업의 사업화와 성장에 활용할 수 있다.

또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를 통해 투자유치 지원, 대·중견기업 협업 지원, 사무공간 제공 등 외국인 창업기업

의 국내 정착과 성장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난해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외국인 창업가들의 높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특히 2024년 9월 한국에 진출한 폴리아머리지는 동 사업과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등 해외 창업기업 국내 유치 지원사업에 참여해 11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중기부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지원 규모와 지원금 수준을 확대했다. 지원 규모는 기존 10개사에서 15개사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평균 4천만원(최대 6천

만원)에서 5천만원(최대 8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중기부는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성을 갖춘 외국인 창업가들이 한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외국인 창업기업이 한국 창업생태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세한 사업 내용은 중기부 또는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내달 10일까지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고령지 배추 방제에 토양훈증제·미생물퇴비 효과 확인

농진청, 복합 방제기술 방제 99% 상승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토양훈증제와 미생물퇴비를 병행 처리하는 복합 방제기술을 2년 연속 적용한 결과, 반쪽시들음병 방제 효과 향상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반쪽시들음병은 감염 시 잎이나 줄기의 절반이 노랗게 변하며 시드는 병해다.

특히 생육 후기에 병세가 급격히 악화해 배춧속이 차지 않아 수확할 수가 없다. 최근 이상기상과 이어짓기(연작) 재배가 늘어남에 따라 고령지 여름배

추 재배지에서 병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며 발생 면적도 확대되는 추세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토양 훈증제와 미생물퇴비 방제기술을 2년 연속 적용하면 방제 효과가 기존 95% 수준에서 99% 수준까지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태백 농가에서는 1년 차에 95.7%였던 방제 효과가 2년 연속 적용했을 때 99.6%까지 상승했다.

강릉 지역 역시 94.9%에서 99.7%로 높아져 연속 처리가 병 억제에 큰 효과가 있음을 현장에서 입증했다.

고령지농업연구소 시험 재배지(포장) 연구에서도 토양훈증제만 단독 사용한 경우, 1년 차 51.6%, 2년 차

49.6%로 효과 차이가 거의 없었다.

반면 미생물퇴비만 단독 처리했을 때는 50.1%에서 67.3%로 상승했고, 두 가지를 함께 쓴 복합 처리구에서는 1년 차 70.1%에서 2년 차 89.4%로 방제 효과가 눈에 띄게 향상됐다.

이번 방제에 활용된 미생물퇴비 핵심 기술은 2025년 특허 등록 후 현재 9개 산업체에 기술 이전돼 다양한 제품으로 생산되고 있다.

농가 호응도 높아 2024년 40헥타르(ha)였던 미생물퇴비(미생물퇴비, 토양개량제 등) 보급 면적이 2025년 618헥타르(ha)로 약 15배 이상 급증했다.

태백에서 열린 농가현장평가회에

서 연속 처리 효과를 직접 확인한 농가들이 향후 토양훈증제와 미생물퇴비 복합처리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면적도 약 50헥타르(ha)에 달했다.

농촌진흥청은 돌러짓기(윤작)와 미생물퇴비를 연계한 지속관리형 토양 병 방제 기술을 개발해 고령지 여름배추 재배지의 토양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조광수 소장은 "반쪽시들음병 같은 토양 병은 단기 처방보다 지속적인 관리가 방제의 핵심이다. 미생물 기반 기술을 접목해 고령지 배추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LX김제지사 119행복하우스 '행복나눔축량' 실시

LX공사가 행복나눔축량을 펼치며 지역민들의 행복 축량을 실천해주며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

17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 김제지사는 김제시 용지면 봉의리 일원에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위한 '행복나눔축량'을 실시했다.

'행복나눔축량'은 LX공사가 전국적으로 추진해 온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번 축량은 전북도 소방본부의 요청으로 추진된 '119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화재 등으로 거주가 어려워진 이웃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LX김제지사는 경제복원축량을 통해 도시 경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건축 인허가 및 토지 활용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제공



<사진=LX공사>

할 예정이다. LX김제지사 오상목 지사장은 "119 행복하우스 건축지원 사업에 참여해 주거 재건 지원에 힘을 보탬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노년기 건강관리 캠페인' 전개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본부장 엄진영)는 17일 중부노인복지센터에서 노년기 건강관리 건강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건협 전북지부는 캠페인을 통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동맥경화도 및 혈관노화도검사를 실시해 개인별 혈관 건강상태를 정밀하게 점검했다.

특히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 수칙 교육과 맞춤형 건강 상담을 병행해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엄진영 건협 전북지부 본부장은 "혈관 질환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민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올바르게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사진=농식품부>

농식품부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공모

생산·공급 사업범위 확장

농식품부가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 및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에 한창이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공모를 통해 △시설원예 △노지 △축산 분야 대상 총 15개사 내외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은 스마트농업 연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아울러 스마트농업 지자체·솔루션 공급기업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스마트농업 재배기술을 보유한 농업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평가는 △차별화된 기술 보유(기술역량) 여부 △기술(보급실적) 현장 도입 성과 여부 △재무 상황 및 성장 잠재력(경영능력)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2년간 유효하며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스마트팜 종합자금 융자한도를 최대 100억원 이내까지 확대할 수 있다.

또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 △농식품 유관기관과 연계해 △금리 감면 △보증 확대 △민간투자 유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평가결과 상위 기업에 대해서는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 기관 추천서를 우선 발급한다.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기자재·서비스의 생산·공급 사업까지 사업범위를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은 △시설원예 및 노지 분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축산 분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및 각 접수기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이번 공모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故 이용일 KBO 총재 직무대행, 체육소장품 기증

전북체육역사박물관 조성 성공 기원 시청각 자료 등 전달

고(故) 이용일 KBO 총재 직무대행의 유가족들이 전북체육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체육 소장품 기증에 동참해 감동을 주고 있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한국 프로야구 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고(故) 이용일 KBO 총재 직무대행의 유가족들이 박물관 조성 사업의 성공을 위해 값진 소장품을 전달했다.

기증된 주요 소장품은 군산상고 야구부와 KBO, 국제대회와 관련 사진 및 시청각 자료 등이다.

또 고인이 자신의 야구 인생을 직접

집필한 에세이 서적도 포함돼 고인의 발자취와 군산상고의 옛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서울 경동중 야구부 창단 멤버를 시작으로 서울과 군산 등에서 야구 선수 이력을 이어온 고인은, 청소년 교육을 목적으로 군산국민학교, 중앙국민학교, 군산남국민학교, 금광국민학교 등 4개 국민학교 야구부를 창단했다.

이어 군산상고고등학교 야구부까지 창단하며 전북 야구의 부흥을 이끌었다. 또 대한야구협회, 한국실업연맹, 한국대학연맹, 한국고교연맹의 통합을 추진 1980년대 초 KBO 리그 출범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이후 KBO 초대 사무총장, 쌍방울 레이더스 구단주 대행, KBO 총재 대행을 역임해 야구 유망주 및 야구 발전에 힘썼으며, 전북 야구의 원로로서 프로야구 제10구단 전북 유치 추진위원회 위



원장으로서의 활동했다.

유가족은 "전북체육역사박물관 건립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 체육회 정강선 회장은 "야구의 원로이자 대부인 고 이용일 KBO 총재 직무대행의 소장품을 가족분들이 기증

<사진=전북도체육회>

해 주셔서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다"며 "전북체육역사박물관 조성은 물론이고 전북 체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교육청 'AI·디지털 선도학교' 선정

총 100개교에 운영비 지원 'AIEP' 시범 활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초등학교 48개교, 중학교 24개교, 고등학교 26개교, 특수학교 2개교 등 총 100개교를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선도학교는 AI와 디지털 기반 교육 자료를 활용해 학생 맞춤형 교육의 우수 모델을 발굴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올해 지정된 선도학교는 지난해 67개교에서 33개교가 늘어난 규모다. 도교육청은 AI·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한 일선 현장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학교에는 규모를 고려해 평균 3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해당 예산은 △AI 기반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활용 △교수·학습 자료 개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등에 쓰인다.

이들 학교는 전북형 AI 교수학습 플랫폼인 'AIEP'를 시범 활용해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AI·디지털 교육 자료를 활용한 교수·학습 사례 발굴과 수업 나눔 과제를 수행한다.

전북교육청은 선도학교 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우수 사례집 발간과 성과 보고회 등을 열어 현장의 혁신 모델이 다른 학교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장기영 전북교육청 미래교육과장은 "AI·디지털 선도학교는 교실 수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고 전북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한 명 한 명이 최적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는 교육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무주 최북미술관, 뮤지엄 라운지·그림책 전시실 개관

2024 지역 특성 살리기 공모 선정 기반

무주 최북미술관 "뮤지엄 라운지·그림책 전시실"이 17일 개관했다. 이 공간은 무주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역 특성 살리기 공모'에 선정되면서 확보한 12억 원의 사업비(지방소멸 대응 기금 4억 원 포함)를 투입해 조성한 곳으로, 주민들의 휴식과 만남을 위한 '뮤지엄 라운지(커뮤니티 카페)'와 '그림책 전시실', 그리고 최북미술관의 BI와 캐릭터 등을 활용해 제작한 기념품을 판매하는 '굿즈숍'이 자리하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남녀노소 모두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뮤지엄 라운지와 그림책 전시실이 미술관을 주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나눌 수 있는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뮤지엄 라운지'의 일부 공간은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지회장 이광부)가 시니어 사업단을 활용해 '커뮤니티 카페'로 운영한다.

'그림책 전시실'에서는 현재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전(展)이 열리고 있다. 임정희 무주군청 태권문화과 문화정책팀장은 "어르신들에게는 안정적인 사회참여의 기회를, 아이들에게는



창의적인 문화 체험의 장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김환태 문학관', '무주상상

반디숲'과의 시너지 효과도 높여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관광 혁신 이끌 주인공 찾는다

4개 부문 공모·50개사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 이하 재단)의 전북관광기업 지원센터는 지역 관광 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 '2026년도 관광 기업 지원 공모사업' 참여 기업 모집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오늘 센터 1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예비 창업자와 관광 기업들이 공모 준비 과정에서 겪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춘 사업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설명회를 통해 'AI 활용 사업 계획서 작성법' 교육을 진행하고, 창업 전문가와의 1:1 상담 부스를 운영해 참여 기업의 사업계획서 작성과 비즈니스 모델(BM) 점검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3월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4건의 공모 사업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안내한다. 공모 사업은 로컬라이징(전통적 관광기업), 관광굿즈, 관광일자리 인턴십 프로그램, 관광스타트업으로 총 4건이며 약 50개사 내의 기업을 선발하고 총 5억 9천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도내 14개 시·군 지역 상생, 전북만의 특화된 관광 콘텐츠 발

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로컬라이징(전통적 관광기업) 공모는 전통적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접수하며, 1차 발표심의를 통해 5개사 내외를 선정한다.

△관광굿즈 공모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토크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내달 16일까지 접수하며, 1차 일반인 전시 심의와 2차 발표 심의를 통해 10개사 내외를 선정한다.

△관광일자리 인턴십 프로그램 공모는 도내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내달 6일까지 접수하며, 1차 서류심의를 통해 18개사 내외를 선정한다.

△관광스타트업 공모는 예비 창업자와 혁신적인 관광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접수하며, 1차 서류심의와 2차 발표심의를 거친 후 17개사 내외를 선정한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전북만의 색을 가진 혁신적인 관광 기업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연계를 이어져 전북 지역 경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jbct.or.kr)과 관광기업지원센터(063-230-4216)에 문의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교육 판 바뀌야” 이경한 교수, 이남호 예비후보 지지

“거대 조직 운영 경험 협치 이끌 책임자” 평가

이경한 전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17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이남호 예비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이 교수는 이날 회견에서 이남호 후보 지지 이유를 밝히는 동시에, 같은 학교 소속이자 유력한 경쟁자인 전호성 예비

후보의 도덕성 논란을 제기했다.

그는 전 후보의 논문 표절 논란을 겨냥해 "실수를 인지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표절이 이뤄진 것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선 문제"라며 "과거 장관 후보자였다면 이 정도 공방만으로도 이미 낙마했을 사안"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전북 교육계 권력 집단들이 도덕성에 둔감해져 있다"며 "당선 이후 이뤄질 권력 나눠 먹기를 막고, 교육의 판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 나섰다"

고 주장했다.

반면 이남호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풍부한 행정 경험과 협치 능력을 꼽았다. 이 교수는 "교육은 현장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전북 교육이라는 거대한 틀을 거시적으로 바라볼 디렉터가 필요하다"며 "전북대 총장 등 거대 조직을 운영해 본 이 후보가 재정 위기와 지방 소멸이라는 난제 속에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협치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평가했다.

한편 '전 후보의 표절은 비판하면서 이남호 후보의 과거 칼럼 대필 의혹은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교수는 "잘못한 것은 맞지만, 타인의 지식을 그대로 베낀 표절과는 차별성을 뒤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교수는 이번 지지 선언에 앞서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몸담고 있던 시민사회단체인 전북교육자치 시민연대 공동대표직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군산시, 내달 3일까지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모집

군산시는 오늘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제 11기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이끌어 갈 어린이·청소년의원을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군산시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재학 중인 어린이와 군산시에 거주하는 19세 미만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포함)으로, 관심 있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어린이·청소년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기간 내에 군산시청 7층 아동정책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eunc0123@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해 어린이·청소년의회는 굿네이버스 전북북부지부와 협력해 운영될 예정으로, 선발된 어린이·청소년의원들은 △아동권리교육 △선진지 견학 △상·하반기 정례회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통해 군산시 아동의 권익증진과 정책 참여 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군산=지승길 기자

녹색정원도시 익산

‘푸른숲 정원 아카데미’ 개강

익산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정원문화 확산과 시민정원사 양성에 나섰다.

익산시는 전북대학교 특성화캠퍼스에서 제11기 푸른숲 정원 아카데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푸른숲 정원 아카데미는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정원디자인 전문 교육 과정이다. 시민들의 정원 조성·관리 역량을 높이고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시민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시는 지난 16일 교육 장소인 전북대학교 특성화캠퍼스에서 개강식을 열고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시민 70여 명이 참여하며, 상·하반기 총 두 차례에 걸쳐 운영된다.

1학기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2학기는 8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고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이뤄진다.

강좌는 △정원 설계 △지정형 △분재 예술 △도시농업 △옥상녹화 등 다양한 정원 관련 분야를 다룬다. 또한 실습과 현장 견학을 병행해 참가자들이 실제 정원 조성 및 관리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정원사 양성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통해 더욱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보건소 ‘호흡기 감염병 주의보’ 예방 수칙 준수 당부

정읍시보건소가 봄철 새 학기 개학과 함께 학생들의 단체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학교 내 호흡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학령기 소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주로 발생하는 인플루엔자를 비롯해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백일해 등은 학기 중에 발생 빈도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가운데 수두는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미세한 침방울을 통해 아주 쉽게 전파되므로 밀집된 교실 환경에서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또한 최근 주의가 요구되는 백일해는 2주 이상 발작적인 기침이 지속되고 숨을 들이쉴 때 특유의 ‘윽’ 하는 소리가 나거나 구토를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다. 겨울철 대유행이 잦았더라도 개학 시기와 맞물려 학교를 중심으로 소규모 유행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보건소는 감염병 예방의 기본이자 핵심으로 비누를 이용한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준수, 주기적인 실내 환기를 강조했다.

이학수 시장은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학교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직원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일상 속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K-관광섬’ 본격 향해

2027년까지 115억 원 투입해 트레킹·캠핑 인프라 확충 등 총력

군산시가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고군산군도의 말도, 명도, 방축도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명품 ‘K-관광섬’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과 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억 원(국비 50억, 도비 15억, 시비 50억)을 투입해 섬 고유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싶고 머물고 싶은 ‘트레킹 거점’ 조성

시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말도, 명도, 방축도 일원에 트레킹 관련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노후된 말도 숙소를 리모델링해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거점을 마련한다.

먼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각 섬에 응급구조키트와 제세동기(AED)가 장착된 안전시스템을 설치한다. 또한, 원활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명도 구렁이전망대 쉼터 조성, 방축도 여객선 대기실 및 기존 쉼터 리모델링, 말도 해안도로 및 등대길 벽화 조성 등 편의·경관 개선 사업을 인도교 개통예정인 6월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섬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K-관광섬, 고군산군도

시설 확충과 더불어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민 수용태세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주민 역량 강화 사업과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을 병행해 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

한다는 전략이다.

먼저 주민들을 섬 해설사로 양성하는 ‘섬마을 주민학교’와 위생·친절서비스 교육을 통해 주민 스스로 관광 자원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자생적 역량을 키우고 있다. 특히 주민 해설사가 섬의 역사와 설화를 직접 들려주는 ‘말도 섬친소’ ‘명도 섬친키’ 등의 프로그램은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섬 밥상과 어촌 체험을 결합한 ‘GO!군산 섬해진미’ 역시 섬의 자연과 문화를 오감으로 체감하게 하는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김문숙 문화관광국장은 “인도교 개통에 따른 관광객 증대에 대비해 화장실, 쉼터 등 기초 기반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군산만의 미식과 체험이 어우러진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여 전 세계인이 찾는 명품 트레킹 성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 중동발 위기 ‘비상경제대응 TF’ 가동

민생물가·석유가격안정 수출입지원팀 등 3개 팀

익산시가 중동 지역의 전쟁 위기로 인해 치솟는 기름값과 생활 물가를 잡기 위해 ‘비상경제대응 TF(기획팀)’를 긴급 가동하며 경제 지키기에 나섰다.

17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부서장 주제로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열고, 대외 상황 변화가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며 세부별 대책을 논의했다.

기획팀은 △민생물가안정팀 △석유가격안정화팀 △수출입지원팀 등 여러 부서들이 모인 3개 팀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기름값과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생활 물가 덩달아 뛸 것을 우려해 선제적인 대응에 들어간다.

주요 대책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물가가 저렴한 ‘착한가격연구소’를 더 많이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유소들의 기름값 동향을 현장

에서 꼼꼼히 점검하고, 농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중동을 비롯한 해외로 물건을 파는 수출기업들이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애로사항을 듣고 맞춤형 지원 사업을 연결해 줄 방침이다.

최재용 익산시 부시장은 “전 세계적인 기름값 상승으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민생과 직결되는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경제가 활기를 잃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근로복지공단과 퇴직연금 지원 확대

노후소득 보장 강화 ‘푸른씨앗’ 추가 지원

군산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지원 확대에 나선다.

군산시는 17일 군산시청에서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민 군산시장 권한대행과 성현규 근로복지공단 의료복지이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영세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 근

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군산시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단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푸른씨앗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추가 지원 사례로는 전국 최초다.

지원 대상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서 근무하는 전년도 월 평균 보수 281만 원 미만 근로자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20%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는 사업주에게 환급되고 10%는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

에 적립된다.

군산시는 여기에 더해 공단이 근로자에게 적립하는 금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해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별도로 적립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대, 장기근속 유도 및 고용 안정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민 군산시장 권한대행은 “퇴직연금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라며 “군산시가 추가 지원에 나서는 만큼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2026 시민과의 대화’ 성료

23개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2백여건 접수

정읍시가 지난달 23일 정읍면을 시작으로 이달 16일 칠보면까지 총 12일간 2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한 ‘2026 시민과의 대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순회 방문에는 총 2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지역의 주요 현안과 일상 속 불편 사항을 자유롭게 나눴으며, 그 결과 도로 확포장과 농로 포장, 용배수로 및 소화전 정비 등 생활 밀착형 건의 사항 약 200여 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안건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 정비와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복지 택시 운행 개선, 도시가스 공급 확대, 경로당 부식비 지원 등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다양한 의견이 포함됐다.

이학수 시장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신속한 조치를 지시하고



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면밀한 확인을 거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이번 대화에서 수렴된 200여 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철저한 현장 점검과 세부 검토를 거친 뒤 향후 처리 계획을 건의자에게 개별적으로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바른 생각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누구나 살기 좋은 정읍으로 신뢰받는 정읍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뮤지컬 ‘푸른 사자 와니니’ 공연

오는 21일 예술의 전당서

익산시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창작뮤지컬 ‘푸른 사자 와니니’를 무대에 올린다.

익산예술의전당은 오는 21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푸른 사자 와니니’를 공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에 선정되며 평단과 관객의 호평을 받은 작품으로, 누적 판매 100만 부를 돌파한 이현 작가의 동명 동화를 원작으로 한다.

작품은 아프리카의 광활한 초원을 배경으로 어린 암사자 ‘와니니’의 성장 이야기를 그린다. 약하다는 이유로 무리에서 쫓겨난 와니니가 척박한 야생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서로의 존재를 이해하며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한다.



<사진=익산시>

특히 무대에서는 정교하게 제작된 인형(퍼펙트)과 생동감 넘치는 영상 기술이 결합해 아프리카 대평원의 역동적인 생명력을 표현한다.

공연은 48개월 이상 관람 가능한 고령 2만 원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예술의전당 누리집과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기적의 놀이터, ‘창의 프로그램’ 본격화

23일까지 전문 운영사 모집

정읍시가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놀이 문화를 확산하고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돕기 위해 기적의 놀이터를 무대로 ‘창의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 사업 수행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창의놀이터 사업은 총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된다. 연간 1800명 이상의 만 12세 이하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5개의 상설·기획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꾸러질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상시 볼록 놀이를 비롯해 평일 주제별 놀이, 주말 창의 놀이, 계절별 생태 놀이,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참여 행사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모든 과정을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철저한 안전 관리 계획 아래, 검증된 전문 인력을 배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이처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할 역량 있는 업체를 찾기 위해 제안서 평가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업체는 오는 23일까지 정읍시청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을 직접 방문해 제안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우편이나 온라인 접수는 받지 않으며 접수 마감 후 종합적인 제안서 발표(PT) 평가를 거쳐 4월 초 최종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홍보와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익산시가 시민들의 삶에 배움의 즐거움을 더하는 평생학습 기반을 강화한다.

익산시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억 8,360만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익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며 오는 12월까지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평생학습 활성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학습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김제시, 순창군, 전주대학교, 원광대학교, 전주전대학교, ㈜KTcs와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50+ 로컬플러스 프로젝트 ‘아게동무 인생학교’ △이(에)로운 디지털 생활 스티디컬 튜터 교실 등이 추진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평생학습 기반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 국가산단 ‘AX 대 전환’ 본격 시동

군산시가 조선·해양 산업의 인공지능(AI) 기반 제조혁신을 위한 ‘군산 해양모빌리티 AX 혁신허브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수혜기업 모집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정부의 ‘AX 실증산단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군산국가산단 단지 일원을 중심으로 2028년까지 총사업비 252억 원(국비 140억 원 포함)을 투입해 조선·해양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제조공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과 기업의 AX 수준 진단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며, 기업들이 AI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조 AI 오픈랩(Open Lab)’ 구축을 위한 건축 설계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을 중심으로 지역 혁신기관들이 참여해 중소기업 특화 AX 전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26일까지 △공강 내 AI 활용을 위한 기초데이터 확보 △설계·구조 분석 AI 자동화 등 7개 분야 수혜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국내 조선·해양 산업의 AI 기반 디지털 전환 거점 육성을 목표로 △AX 종합 지원센터 구축 △제조 AI 오픈랩 조성 △AX 가상공장 실증플랫폼 구축 △SaaS 기반 제조 AI 서비스 지원 등 4대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군산 국가산단단지가 AI 기반 제조혁신을 선도하는 AX 산업단지로 도약하고,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부안군-원광대, ESG 메디컬 산업 협력

출포만 해양자원 활용 성장모델 구축메디컬 웰니스 산업 육성 맞춘

부안군과 원광대학교는 지난 16일 부안군청 중회의실에서 ESG 메디컬 상생협력 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박성태 원광대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출포만 해양 생태자원과 의료 인프라를 연계한 메디컬 치유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출포만 노을빛 지방정원 일원에 ESG 메디컬 상생협력 지원센터를 조성하고 해양 치유와 메디컬 산업을 연계한 지역 성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출포만의 블루카본 갯벌 등 해양 생태자원을 활용한 해양 치유 산업을 육성하고 메디컬 웰니스 프로그램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과 지역 의료·복지 서비스 확대에 집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ESG 메디컬 상생협력 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해양 치유 및



지난 16일 부안군-원광대학교 ESG 메디컬 상생협력 지원센터 조성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사진=부안군>

예방의학 기반 메디컬 프로그램 개발, 출포만 갯벌 등 해양 생태자원을 활용한 치유·웰니스 프로그램 연구, 기업 ESG 연수 및 메디컬 치유 프로그램 운영, 지역 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청년·지역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군은 사업 인프라 구축과 행정·재정 지원, 해양 치유 자원·지역 관광자원 연계 등을 추진하고 원광대는 의료·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예방

의학 연구, 메디컬 웰니스 콘텐츠 개발 및 전문 인력 지원 등의 사업 추진에 참여할 예정이다.

권익현 군수는 "출포만의 갯벌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 치유 산업은 부안의 미래 관광·웰니스 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원광대와 협력을 통해 의료와 치유, 관광이 결합된 새로운 지역 성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주민 숙원 해결 현장 점검

김치산업 기반 강화 배추 식재 현장도 방문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16일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현장을 점검하고, 김치원료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봄배추 식재 현장을 방문했다.

먼저, 고창군수는 고창읍 남흥동 일원의 용수로 정비 민원현장을 찾아 사업 대상지와 주변 여건을 직접 살피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해당 지역은 노동저수지에서 덕산마을로 이어지는 폭 1.5m 규모의 농어촌

공사 관리 용수도가 설치된 곳이다. 도로와 접한 약 120m 구간에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추락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여기에 쓰레기 무단투기와 오·폐수 유입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마을 주민들의 지속적인 환경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추락사고 우려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약속했으며, 농어촌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배수로 복개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수는 대산면 연동리 일원의 배추 식재 현장을 찾아 생육상황과 재배 여건을 점검하고,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대응에 나섰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러한 대형 사업들이 농가 현장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현황을 직접 살피고, 향후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과 노지 스마트농업 기반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배추 생산기반을 더욱 체계화하고, 김치산업의 원료 공급부터 스마트 생산체계까지 연계되는 지역 특화산업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365 군민소통광장' 원스톱 피드백 호평

게시글 500호 돌파 소통·적극행정 결실

부안군은 군민 소통 통합 플랫폼인 '365 군민소통광장(이하 소통광장)'이 운영 시작 약 7년 만에 게시글 500호를 달성하며 군민과 군정을 잇는 든든한 교역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원스톱 피드백에 있다.

의견이 접수되면 즉시 소관 부서가 지정되고 부서 검토를 거쳐 처리 답변이 게시되는 전 과정을 군민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단순한 답변에 그치지 않고 처리 실태를 사후 점검하는 절차를 통해 행정의 책임감을 높여왔다.

이번 500호 달성 과정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다.

지난 2025년 부안초등학교 4학년 4반 학생들은 사회 교과 과정인 '주민자치와 주민참여' 수업의 일환으로 '살기 좋은 부안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해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소통광장에 직접 제안했다.

주요 사례로는 부안예술회관 회전교차로 횡단보도 이용을 방해하는 현수막 정비 요청, 부안 해돋이마루 지방정원 놀이터 및 한솔프라자 인근 가로등 설치 요청 등이 접수됐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아이들의 순수한 시선이 담긴 제안 내용을 보고받은 후 즉시 현장 확인과 조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는 현수막 정비

작업 완료하고 가로등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정다감한 답변을 게시하며 체감형 소통 행정의 본모습을 보여줬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안교육지원청은 올해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지역와 교재인 '우리 고창 부안'에 소통광장 링크를 수록하기로 결정했다.

권익현 군수는 "소통광장은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며 "게시글 500호 달성이라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군민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살피고 해결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군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김제시, 장애인 건강안전망 구축

보건소-장애인복지관 협력체계 강화

김제시보건소는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승택)과 17일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격차 해소와 체계적인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공공보건서비스의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치매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관리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 및 기능유지 지원 △보건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건강안전망 구축 △대상자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은주 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건소와 장애인복지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관리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소와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치매 및 정신건강 관리, 재활보건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지역사회 건강안전망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기여할 계획이다. /김제=은봉기 기자

김제 진봉산 망해사일원, 명승 정비 추진

자연 보존·정비 방향 논의

김제시는 명승 '진봉산 망해사일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지난 1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시를 비롯해 국가유산청과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 자연유산 분야 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이 참석해 망해사 일원의 자연경관 보존과 향후 정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참석자들은 서해 낙조와 진봉산이 어우러진 망해사 명승의 뛰어난 경관적 가치를 공유하며

자연경관 보존을 중심으로 한 정비 방향과 방문객 이용 여건 개선, 경관 관리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시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하고 오는 6월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망해사 명승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연유산 명승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 1만8946호 개별주택공시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고창군이 오늘부터 4월6일까지 2026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18,946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고창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46% 상승했으며 이는 지난해 0.97%보다 증가한 수치다. 주택가격 변동률이 가장 높은 곳은 고창읍으로 2.49% 상승했으며, 기타면지역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고창군 최고가 주택은 고창읍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으로 8억8000만원이며, 최저가 주택은 대산면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1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안은 주택소재지 읍·면 주민행복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6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를 거쳐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며 오는 4월 28일 최종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관련 조세뿐 아니라 복지 정책 수혜 자격 등 60여 개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폭발·화재 등 13개 항목 보장

김제시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시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를 비롯해 대중교통 사고, 강력범죄 피해 등 총 13개 항목을 보장하며 시민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주요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상해 사망 등이다.

보장 금액은 항목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이며,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등 다른 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며 "시민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김제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부안군, 개혁기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 전개

부안군은 2026년 상반기 개혁기를 맞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 한달간 '개혁기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개선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새 학기를 맞은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주변과 변화하기 위한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부안군은 이번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안군청, 각 읍·면사무소, 부안경찰서, 부안교육지원청 및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진행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학교 인근 및 변화가 내거게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물건 판매 확인 △정점소 출입·고용 금지 업소 이행 실태 점검 △19세 미만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 부착 여부 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새 학기를 맞은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캠페인을 전개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고창 벚꽃축제' 내달 3~5일 개최

고창군이 오는 4월 3~5일(3일간) 고창석성온천지구 일원에서 '제4회 고창 벚꽃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4회를 맞는 고창 벚꽃축제는 '봄, 봄, 봄'을 주제로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형 봄 축제로 펼쳐질 예정이다.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뽕뽕 군민활력 운동회', 지역 농업 체험을 접목한 상하농원과 함께하는 '딸기 파티쉐, 봄 감성을 담은 음악 공연 '봄봄봄 콘서트' 등이 마련된다.

축제장 곳곳에는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SNS 감성 포토존이 조성되며, 야간에는 벚꽃길을 따라 조명과 경관 연출을 더한 '야간 벚꽃만발 아트로드'가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축제 공간을 확장해 벚꽃정원을 중심으로 '봄날 치유마실' 주간 체험 공간을 새롭게 조성한다. 자연 속에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잔디 위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는 치유정원 캠프니,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문화도시 팝업로드, 자연과 함께 마음의 여유를 찾는 치유 명상 프로



<사진=고창군>

그램 등이 마련돼 방문객들이 봄날의 여유와 힐링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외에도 인기 가수 박창근, 김희진, 헤이즈, 테이 초청공연이 예정돼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벚꽃이 아름다운 봄날, 고창 벚꽃축제는 자연과 문화, 치유와 체험이 어우러진 특별한 봄 여행지가 될 것이다"며 "관광객과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전통장류 미국 뉴욕 첫 수출

고창군이 지역에서 생산된 전통 장류(된장·고추장)가 미국 뉴욕 시장에 상륙하며 본격적인 글로벌 행보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미국 최대 한인 유통망인 뉴욕 H마트의 첫 수출길에 오른 고창 장류의 수출 물량은 약 3000만원 규모다. 고창의 전통 발효 식품이 까다로운 미국 시장의 위생과 품질 기준을 통과해 현지 메인스트림 시장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수출의 일등 공신은 농촌진흥청의 기술과 고창군의 지원으로 추진한 '위해요인 제어 전통장 제조·발효 관리기술 보급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토굴발효형 농조합법인'은 스마트 온실제어 시스템을 도입해 발효의 핵심 요소인 온도

와 습도를 정밀하게 관리해 전통 장류의 고집적인 숙제였던 '품질 균일성'과 '위생 안전성'을 동시에 해결했다.

된장과 고추장은 100%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 등 위해 요인을 체계적으로 차단하는 발효 관리기술이 적용됐다.

오성동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수출은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의 기술 보급이 실제 해외 시장 진출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다"며, "앞으로도 고창의 우수한 농식품 가공업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 판로 개척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열어

부안군은 17일 부안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위원장인 정화영 부군수 주재로 군, 경, 소방, 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적십자사 등 8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오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부안군 상서면 개암동 벚꽃길 일대에서 개최되는 제8회 개암동 벚꽃축제의 안전관리계획안과 4월 19일 부안군 번산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6 부안 전국해변마라톤 대회의 안전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수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의 특성을 고려해 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즉시 반영하도록 했으며 축제 개최 전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최종 점검을 실시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정화영 위원장은 "축제의 성공은 완벽한 안전관리에서 시작된다"며 "행정의 역량을 집중해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순창군, 옥천골 벚꽃축제 4일간 개막

내달 2-5일 경천변 일원 개최 군민 참여형 프로그램 마련 공연·체험·볼꽃놀이 '풍성'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분홍빛 벚꽃이 만개하는 계절, 순창에서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순창군은 오는 4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순창읍 경천로 일원에서 '제23회 옥천골 벚꽃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순창군>

옥천골벚꽃축제 제전위원회(위원장 나현주)가 주관하고 순창군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벚꽃이 만개한 경천변 일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여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봄날의 추억을 선사한다. 옥천골 벚꽃축제는 순창의 대표적인 봄 축제로, 매년 아름다운 벚꽃 풍경과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통해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축제 기간 동안 행사장 일대에는 벚꽃이 장관을 이루는 가운데 개·폐회식과 볼꽃놀이,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져 봄밤의 낭만을 더한다.

아울러,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군민노래자랑, 읍·면 댄스페스티벌, 생활예술동호회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도 마련돼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맨손 장어잡기 체험은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 둘째 날인 3일 저녁에는 개회식과 함께 화려한 볼꽃놀이가 펼쳐져 벚꽃이 만개한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

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가수 공연과 유튜브 공연, 청소년 국악 오케스트라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어지며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나현주 옥천골벚꽃축제제전위원회 위원장은 "옥천골 벚꽃축제는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려 봄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순창의 대표적인 봄 축제"라며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경천변에서 가족, 친구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XR 하이로드 스마트버스 본격 가동

버스 창문 활용 실감형 콘텐츠 21일 시승식 통해 최초 공개

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은 오는 21일, 완주 산단 일대에서 차세대 실감형 콘텐츠 거점인 완주 XR 하이로드 스마트버스 시승식 및 시운행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완주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완주군, 한국콘텐츠진흥원, 완주문화재단이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버스 창문을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최첨단 XR(확장현실) 기술을 도입해 산단 근로자와 주민들에게 일상 속 차별화된 문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광을 아우르는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해 탑재했다. 주행 중 창밖 풍경 위로 완주의 다양한 모습들이 실감나게 나타나도록 구성돼 탑승객들에게 완주의 가치를 새롭게 전달한다.

완주군로자중합복지관에서 열리는 시승식에서는 스마트버스의 기술 구현 과정을 담은 결과보고 발표와 함께 공식적인 첫 운행을 알린다. 이번 공개되는 스마트버스는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과 결합된 실감형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미래형 이동수단이다.

시운행 체험은 행사 당일 총 4회(10:30, 11:30, 16:20, 17:20) 진행된다. 운행 노선은 한국무브렉스, 비나텍, 에너이버배터리 솔루션, 원진알유미늄, 현대자동차 등을 즐길 수 있는 미래형 이동수단 중심으로 순회하며, 탑승객들에게 완주의 첨단 산업 현장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특히 이번 XR 하이로드 스마트버스는 완주의 첨단 산업 현장과 함께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남원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 '뿌리 뽑는다'

계곡·하천 전수 재조사 착수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추진

남원시는 하천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및 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및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오랜 기간 묵인되거나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불법 점용을 뿌리 뽑고, 공공하천의 본래 기능을 되살리겠다는 것이 이번 정비의 목표다. 이번 정비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앞둔

시점에 추진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우와 돌발 홍수가 잦아지는 가운데, 하천 불법 점용은 재해 발생 시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건축과·보건소·환경과·산림복지과·지리산국립공원 관계기관이 포함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전담(TF)팀'을 구성해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1차 전수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필요시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도 추진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하천구역 내 과실수 식재, 농작물 행위, 불법시설물(평상, 그늘막 등)으로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각종 불법 시설물 등이다. 이번 정비 전담(TF)팀은 하천 뿐만아

니라, 불법 건축물, 하천 수질오염, 불법 산지전용, 국립공원 내 불법점용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차 전수조사는 6월 1일부터 19일 추진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를 계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와 함께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 및 단속을 통해 하천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제96회 춘향제 추진상황 1차 보고회

안전·교통·위생 관리 집중 점검 부서 간 협력체계 강화

남원시는 4월 30일 개막하는 제96회 춘향제의 빈틈없는 준비를 위해 17일 시청 회의실에서 제1차 춘향제 행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경식 남원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부시장과 실·과·소장, 부서장 등 관계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해 축제 프로그램별 운영 계획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부서별 담당업무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과 안전관리, 관광객 편의 대책 등 축제 전

반에 대한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시는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대동길놀이 안전관리 △교통 및 주차 질서 관리 △주차장 및 셔틀버스 운영 관리 △먹거리·음식점 위생 관리 △행사장 청결 유지 등 주요 분야별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뜻을 모았다. 올해로 96회를 맞이하는 춘향제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남원 광한루원 및 요천 일원에서 펼쳐진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어린이날 아동·청소년 '끼 자랑대회' 개최

어린이날 어울림광장서 개최 댄스·밴드팀 참가자 모집

완주군이 오는 5월 5일 제104회 어린이날에 아동과 청소년들이 주인공이 되어 숨겨진 재능과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2026 완주군 아동·청소년 끼 자랑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이 지향하는 아동·청소년의 문화적 권리 증진과 자기표현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완주군청 내 어울림광장 일대에서 진행되며,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풍성한 축제로 펼쳐질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완주군 관내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청소년 댄스팀과 밴드팀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팀은 오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예선 심사는 제출된 동영상 녹화본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진행되며, 이를 통해 댄스팀과 밴드팀 각 5팀씩 총 10팀이 어울림광장에서 열리는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된다. 대회 당일 본선에서는 전문 심사위원의 평가를 거쳐 각 분야별 대상, 최우수상, 인기상을 선정하며 총 6개 팀을 시상한다. /완주=김명곤기자



<사진=완주군>

완주군, 만경강 경관지구 조성 앞서 주민과 소통

19일 봉동읍서 주민설명회 토지소유자 및 주민 의견 수렴

완주군이 만경강 일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경관 조성을 위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군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토지소유자와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만경강 주변 경관지구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만경강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지역 특색을 살린 경관지구 조성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의견 청취를 위

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경관지구 조성사업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사업 계획 및 주요 내용 △향후 행정 절차 및 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최우현 농업정책과장은 "만경강 주변 경관지구 조성은 지역의 소중한 자산을 만경강을 보다 가치 있게 가꾸어 나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경관지구 조성을 발판 삼아 만경강 일대를 완주군을 대표하는 생태축제의 장이자 관광 명소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춘향제 전 관광지 주차장 정비 '속도'

8억 투입 188→295면 늘어나 조명타워 설치 안전성 강화

남원시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남원 관광지 주차장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남원시 어현동 37-12번지 일원 남원 관광지 주차장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총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6년 2월부터 4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제 96회 춘향제 이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

이다.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남원시는 앞서 기존 화단 철거가 수반되며, 식재되어있는 기존 수목을 부서 수요조사와 관련 기관 협의에 따라 소나무 15주를 합파우 일원(김병중 미술관·복합문화관)으로 이식하는 방법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주차장 내 조명 타워 설치로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충분한 조도를 제공해 이용 편의와 안전성을 함께 높일 예정이다. 주차장 면적은 기존과 같으나, 전체 주차면 수는 기존 188면에서 295면으로 107면 증가하게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세부적으로는 소형차 주차면이 기존 161면에서 279면으로 118면 증가하며, 이 가운데 일반 주차면은 145면에서 207면, 아동 등 배려 주차면은 2면에서 29면, 경차 주차면은 0면에서 29면으로 현행 법령에 따라 확대된다. 반면 대형차 주차면은 기존 27면에서 16면으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관광수요 변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관광 성수기와 각종 행사 시 반복되던 주차 혼잡을 완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벼 종자 온탕소독...전염병 예방 선제 대응

읍면 상담소 소독기 설치 지난해 684농가 120톤 지원

순창군이 본격적인 벼 농사철을 앞두고 종자전염병 예방을 위해 벼 종자 온탕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벼 종자전염병은 종자를 통해 병원균이 전염돼 육묘기와 초기 생육기에 병 발생의 원인이 되며, 키다리병과 깨씨무늬병 등 주요 병해의 전염원이 된다. 특히 벼 농사는 종자 관리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파종 전 종자 소독이 매우 중요한 관리 단계로 꼽힌다. 이에 순창군농업기술센터는 이달 말까지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읍·면 제외)에 온탕소독기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설치된 온탕소독기는

농업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온탕소독은 약 60℃의 물에 일정 시간 종자를 침지해 종자에 부착된 병원균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키다리병과 깨씨무늬병 등 종자로 전염되는 병해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에도 온탕소독 지원사업을 통해 684농가, 약 120톤의 벼 종자를 소독하는 등 종자전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께서는 온탕소독기를 적극 활용해 종자전염병 예방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결혼이민자·귀화자 구강예방진료 지원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가 관내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구강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구강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해, 3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2026년 구강예방진료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부담이나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적절한 시기에 치과 진료를 받기 어려운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해당 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1인당 최대 4만 원 상당의 본인 부담금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내 안정적인 구강보건 서비스를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업은 올해 3월부터 시작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남원시보건소 또는 남원시가족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내 14개 협약 치과 의원에서 구강검진, 파노라마 X-ray 촬영, 스케일링, 불소도포 등 구강 질환 예방을 위한 필수 진료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남원시가족센터와 협업해 전담 통역사가 진료 현장에 동행할 방침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금연클리닉 운영 '성공' 3년간 219명 금연 성공

순창군보건소의료원(원장 온기곤)이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돕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금연클리닉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보건소의료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연클리닉에 총 640명이 등록했으며, 이 가운데 219명이 금연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흡연은 폐암을 비롯해 심뇌혈관질환(뇌졸중, 협심증 등), 만성호흡기질환 등 각종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간접흡연 역시 비흡연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건강 위해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순창군보건소의료원 금연클리닉은 흡연자의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일산화탄소(CO) 측정을 통한 1대1 맞춤형 금연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니코틴 보조제와 행동강화 물품을 지원해 금연 실천을 돕고 있으며, 금연 성공 이후에도 최대 12개월까지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로당과 군부대 등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 교육과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온기곤 순창군보건소의료원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금연클리닉과 맞춤형 상담을 통해 건강한 금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어린이집연합회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진행

완주군 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희봉)가 관내 보육교직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심폐소생술(CPR)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현장 맞춤형 구성을 위해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과 산례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으며, 보육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오후와 야간 등 총 4회에 걸쳐 분산 운영하며 참여도를 높였다. 교육 프로그램은 보육교직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정 의무 교육과 실습 위주의 안전 교육으로 구성됐다. 먼저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서는 아동권리 존중 보육의 이해, 신고 의무자로서의 역할, 실제 사례를 통한 학대 징후 조기 발견 및 대응 절차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특히, 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해 교직원들이 당황하지 않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교육에는 이틀간 총 350여 명의 보육교직원이 참여했다. 이희봉 연합회장은 "보육교직원 스스로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신뢰받는 보육 환경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임실군립도서관, 상반기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임실군립도서관은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유와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임실 군립도서관 2개소(임실, 오수)에서 함께 진행되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독서문화 및 평생학습 강좌로 구성되어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자기계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실군립도서관에서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영어동화 교실 △나의 인생 스토리 교실 △타로 심리학을 운영하며,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공예 클래스(친환경 화장품) △코바는 클래스 △공예 클래스 △하모니카 초급 △우쿨렐레 초급 등 다양한 강좌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독서와 문화, 취미 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임실군립 오수도서관에서는 △가족공예 △챗GPT △퍼스널컬러 등 실생활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취미 활동을 경험하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반기 프로그램은 3월 24일부터 6월 초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임실군립도서관은 지난 13일부터, 오수도서관은 오는 23일부터 온라인 및 방문접수를 통해 선착순으로 참여신청을 받는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군 다락골 신전마을 '산촌마당 캠프' 성황리 마쳐

임실군 관촌면 다락골 신전마을은 지난 14일 체험휴양마을 일원에서 '도농교류 산촌마당 캠프'를 개최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2026년 생생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마을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메주를 향아리에 넣고 소금물을 붓는 전통 장 담그기 과정을 직접 체험했으며, 제철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맛보며 우리 전통 식문화를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신전마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 담그기 캠프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도시민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다시 찾고 싶은 농촌마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전북문화관광재단, 기획전시 '미중, 진안' 개최

진안군은 '2026 진안 방문의 해'를 맞아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과 함께 내달 12일까지 한옥마을에 위치한 전주 하안양옥집 복합문화공간에서 기획전시 '미중, 진안'을 개최한다.

'전주 하안양옥집에서 만나는 진안'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진안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관광 자원을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군은 도심 속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진안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시 공간은 △마미산의 신비로운 능선 △진안 용담호의 고요한 풍경 △지역 대표 축제와 문화자원 등 진안을 상징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시각적으로 구성해 관람객을 맞이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진안 용담호사천문화관의 소장 작품을 연계해 눈길을 끈다. 마미산과 진안 용담호, 고원 풍경 등을 현대적인 일러스트 작품으로 재해석해 관람객들이 진안의 자연을 보다 감성적이고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진안군은 과거 도지사 관사를 재단장해 도민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하안양옥집'에서 전시를 개최함으로써 '진안 방문의 해' 홍보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낮춘다

주택자금 1억 한도 내 5년간 이자 전액 지원

무주군이 지역 내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상을 '혼인신고 전후 6개월 이내 신혼부부'에서 '혼인신고 후 3년

이내'로 확대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18~49세 사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 또는 매매 주택자금 대출 시 1억 한도 내에서 5년간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부부 중 최소 1명은 사업 신청일까지 1년 이상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오경태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청년정

책팀장은 "이 사업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기존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실"이라며 "청년 신혼부부들이 주거 걱정 없이 무주에서 행복한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 전락작물직불제 지원 확대

하계 옥수수개 단가 50% 인상 ha당 150만 원 지급 수수·울무 등 4개 작물 신규 도입

임실군이 쌀 수급 안정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2026년 전락작물직불제 신청·접수를 추진한다.

전락작물직불제는 기후 변화와 식생활 변화에 따른 쌀 과잉 생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옥수수와 콩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핵심 농업정책이다.

특히, 논에 벼 대신 두류, 옥수수, 조사료 등 전락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농업 구조개선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논 이용 관리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0.1ha) 이상 전락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작물 재배 시기에 따라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구분해 운영된다. 먼저, 말·보리·호밀 등 동계작물 재배 농기는 내달 3일까지, 콩·옥수수·하계 조사료 등 하계작물 재배 농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 단가와 대상 품목이 확대됐다.

주요 인상 품목을 보면, 하계 옥수수와 콩의 직불금 단가가 ha당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하계 조사료도 ha당 5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인상돼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가의 작목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알팔파(ha당 250만 원), 수수(ha당 240만 원), 수급조절용 벼(ha당 500만 원), 울무(ha당 250만 원) 등 신규 지원 품목도 추가됐다.

농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이모작 인센티브 제도도 강화된다. 동계에 밀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는 이모작을 실시할 경우 ha당 100만 원의 직불금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 면적이 가장 큰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농업e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접수된 농지를 대상으로 동계(4~6월)와 하계(7~10월)에 걸쳐 이행 점검을 실시한 뒤, 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해 오는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여성친화 일촌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여성 일자리 창출 확대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장수군이 적극적인 여성 고용과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 조성을 위해 여성친화 일촌기업들과 손을 잡았다.

장수군은 지난 16일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함께 지역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지역 내 7개 기업과 '여성친화 일촌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성친화 일촌기업이란 세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거나 채용 약정한 기업체로 세일센터와 여성친화적 일터 조성 및 고용 유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주식회사신진에스엠(대표 김은식, 김은주) △장수시니어클럽(대표 김숙희) △장수군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최철학) △장수지역자활센터(대표 김구중) △장수 평화의집(대표 차복순) △나눔농행복사회적협동조합(대표 김태현) △장수도깨비동굴김치영농조합법인(대표 고석일) 등 총 7개소이다.



장수군은 지난 16일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함께 지역 내 7개 기업과 '여성친화 일촌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장수군>

이번 협약은 여성의 일자리 지원 및 모성보호와 양성평등 실현 등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 지역 내 여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군과 기업체간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여성친화 일촌기업들은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및 여성 인력 적극 채용과 고용 유지 실천을 약속했다.

또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

업들은 여성 적극 고용과 취업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군과 워크넷을 통한 구인구직 정보 공유 등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 이후에는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 회의가 이어져 참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신규대상자 모집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임실군이 지난 16일부터 2026년도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의 신규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스마트폰 모바일 앱과 손목밴드 형태의 활동량계를 통해 대상자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원 전문가들이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에는 의료코디네이터, 간호사, 영양사, 운동 전문가가 참여해 전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관내 지역 주민과 직장인이다. 단, 만성질환으로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작년 사업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모집 인원은 35명으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등록은 4월 말부터 시작하며 서비스는 5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총 6개월(24주)이며, 참여자는 이 기간에 총 3차례(최초·중간·최종) 건강검진을 위해 보건의료원을 방문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임실군보건 의료원 모바일헬스케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임실군보건의료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만성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제81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17일 '봉화산 산철쭉군락지 나무심기 행사' 개최

장수군이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전북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봉화산 철쭉군락지 나무심기 행사'를 열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에 나섰다. 군은 17일 번안면 봉화산 산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최한식 장수군수, 최한주 군의회의장을 비롯해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산림조합 관계자, 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군 대표 관공지인 봉화산 산철쭉군락지에 산철쭉 약 5,000그루를 식재해 아름다운 산림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군 최초로 전북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추진되어 의미를 더했다.

장수군은 나무 심기와 더불어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나무 나눔 행사도 장수군산림조합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블루베리, 체리, 감나무 등 유실수 묘목 600주를 선착순으로 분양해 각 가정에서 녹색 문화를 형성하고 친환경 먹거리를 자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행사 현장에서는 산림 보호를 위한 산불 예방 홍보 캠페인도 함께 열렸다. 군은 산불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발적인 예방 활동 참여를 독려하며 산림 자원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지속 가능한 농업 추진 최선

청년 스마트팜·여름딸기 농가 상생협력 체계 구축 나서

무주군이 청년농 정착과 지역 특화 작목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여름딸기 농가와의 생산·유통·기술 분야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 나선다. 고랭지 기후 특성을 활용한 여름딸기 산업 활성화는 물론, 청년 농업인 육성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단지 내 육묘시설을 활용하고 품질 딸기 묘 공급 기반 확충은 물론,

여름딸기 재배 기술, 병해충 관리, 품질관리 등 현장 중심의 기술 교류가 가능해져 생산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동훈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스마트팜팀장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이 청년 농업인들의 무주 정착을 돕고 기후변화 대응, 일손 부족 해소, 농가 소득 증대를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주군의 고랭지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협력사업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장수군, 봄철 가축분뇨 및 퇴비 야적 지도·점검 강화

장수군은 봄철 농번기를 맞아 논밭 등 경작지에 가축분뇨 및 퇴비 등을 야적하는 행위에 대해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주민 홍보와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수역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공공수역 인접 측사 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야적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농가에서는 본인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부속이 완료된 가축분뇨를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퇴비를 야적할 경우에는 악취 확산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덮개를 씌워 보관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장수군은 가축분뇨 퇴비 야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읍·면을 통한 농가 대상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 스스로 적정 처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힘을 모아갈 방침이다.

또한 불법 적치나 퇴·액비화 기준을 위반한 가축분뇨 발견 시 즉시 군 환경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진안형 기본소득' 추진 탄력

오는 6월 시범사업 추진

진안군의 핵심 역점 사업인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최종 완료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군은 지난 16일 오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진안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최종 완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제도 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회 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기존 제도와와의 관계 등을 검토받는 필수 행정 절차로 이번 협의 완료로 진안군은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진안형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의 최소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으로, 2026년 진안군수 1호 결재 사업이다. 이번 협의 과정에서 군은 기존 국가 복지제도와와의 중복성을 피하면서, 진안군만의 특수한 인구 구조와 경제 여건에 반영한 수급 설계안을 제시해 보건복지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이끌어냈다.

군은 이번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전북은행, 익산 취약계층 위한 따뜻한 나눔

선물꾸러미 160상자 기탁

익산시에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전달됐다.

익산시는 17일 시정을 찾은 전북은행과 나눔 물품 기탁식을 진행했다. 기탁식에는 전북은행 익산시청 영업점 최종구 부행장과 김은경 센터장, 최윤희 영업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북은행은 지역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선물꾸러미 160상자(4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선물꾸러미는 라면, 즉석밥, 찹쌀, 치약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으로 구성됐으며 저소득 위기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최종구 부행장은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익산시는 17일 시정을 찾은 전북은행과 나눔 물품 기탁식을 진행했다. <사진=익산시> 선물꾸러미를 준비했다"며 "전북은행은 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사



부안군-고창군 안전총괄과, 기부금 상호 기부

부안군 안전총괄과와 고창군 안전총괄과 직원들은 지난 16일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지역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금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양 시군 안전총괄과 소속 공무원 각 18명씩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로 서로의 지자체에 180만원씩 기부하며 지역 상생 발전을 응원했다.

허용권 부안군 안전총괄과장은 "지자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총괄과 두 기관이 '고향사

랑'이라는 하나의 마음으로 참여해 맺은 이 결실은, 지자체 간 상생 협력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양 지자체가 더욱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상호 기부금에 동참해 준 직원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역 특산물·관광지 홍보, 주민 복지 사업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부안=온봉기 기자



남원시 금동 주민들, '우리동네 사랑나눔 텃밭' 운영

남원시 금동 주민들이 직접 씨감자를 심고 가꾼 농산물을 이웃과 나누는 '사랑나눔 텃밭가꾸기' 사업이 올해도 시작됐다.

금동은 17일 마을 유흥지에서 '우리동네 사랑나눔 텃밭가꾸기'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씨감자 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씨감자 심기 행사에는 작년에 이어 이영노 9동장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씨감자, 퇴비, 농자재 등 지원받아 금동행정복지센터 직원과 통장협의회 등 직능단체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밭을 정비하고 씨감자를 심으며 공동체 활동의 의미를 더했다.

주민들이 함께 재배한 감자와 고구마는 수확 후 지역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고창군, 100세 어르신 찾아 '만수무강' 축하

어르신의 지혜와 경험 나눠

고창군이 100세를 맞은 장수 어르신들 찾아뵙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축하의 시간을 마련했다.

고창군과 고창군노인복지관은 지난 13일 대산면에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댁을 방문해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축하 물품을 전달하며 어르신의 장수를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족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어르신의 생신을 축하하며 정겨운 분위기 속에서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겪은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르신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도 이어졌다.

오수목 고창군 사회복지과장은 "한 세기



를 살아오신 어르신의 삶은 고창군의 소중한 역사이자 자산이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들이 더욱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 용지면 사회단체협, 림프종 환우 가정 도와

성금 995만원 전달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사회단체협의회가 지난 16일 림프종으로 투병 중인 환우 가정을 돕기 위한 성금 995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갑작스러운 림프종 진단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가정은 다문화·다자녀 가정으로, 가장의 림프종 발병 이후 치료비와 생계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용지면 20개 사회단체협의회 의 지역 사회단체들과 용지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

아 성금을 마련했으며 이번 성금에는 환우 가정의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하길 바라는 사회단체들의 진심 어린 응원이 담겼다.

성금을 전달받은 환우 가족은 "치료비 부담으로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큰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보내주신 정성에 힘입어 치료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영환 사회단체협의회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에 임하고 있는 환우와 가족에게 이번 성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성금 모금에 동참해 주신 각 사회단체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임실 덕치면지사협, '찾아가는 칼같이 서비스' 봉사

임실군 덕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3일, 덕치면 하두마을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자원봉사자 등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찾아가는 칼같이 서비스'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하두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칼과 가위 등을 정성껏 갈아드리며 생활 속 불편 해소에 힘을 보탤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수리가 어려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마을 주민 이모씨는 "요즘 칼이 무뎠져 사용하기 불편했는데 마을까지 찾아와 칼을 갈아주셔서 칼이 새것이 되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영농 부산물 태우지 말고 파쇄하세요!

전국 산림조합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 (2026.02.01~03.31)

❌ 태우지 마세요

✅ 파쇄하세요

Namwon Forest Cooperation



원진알미늄, 완주 용진읍에 라면 기탁

완주군의 대표 향토기업인 원진알미늄(대표이사 원태현)이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원진알미늄은 용진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라면 50상자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원진알미늄은 매년 꾸준한 나눔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원태현 대표는 "지역 주민들이 주시는 사랑을 조금이나마 되돌려드리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그늘진 곳을 살피며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대강면지사협, 장애인 독거가구 대청소 봉사

남원시 대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7일 대강면에 거주하는 장애인 독거가구를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청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1일 1가구 가정방문에서 발굴된 가구로 장애로 인해 청소와 정리가 어려운 현황을 보게 되었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참여해 집 안팎의 묵은 먼지와 생활폐기물을 정리하고 주거공간을 정돈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남원=정하복 기자

〈一事一言〉



동맹은 협박이 아니다 - 미국이 만든 불, 왜 한국이 끄라는가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그는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국에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며 한국이 작전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 말부터 사실과 다르다. 실제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 8500명이다. 숫자조차 정확하지 않은 발언에서 동맹을 바라보는 미국의 인식이 얼마나 거칠고 단순한지 드러난다.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는 간단하다. 미국이 동맹국을 지켜주고 있으니 이제는 동맹국들이 미국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다. 지금 중동의 긴장을 극단으로 끌어올린 것은 바로 미국의 군사행동이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이란을 기습 공격했고 방커에 숨어 있던 이란 지도부를 공습으로 제거했다. 선전포고도 없는 공격이었다. 주권 국가의 지도자를 군사력으로 제거하는 방식은 국제 질서의 기본인 주권과 국제법 원칙을 정면으로 흔드는 행동이다.

최근의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남미의 주권국가 베네수엘라에서도 군사작전이 벌어졌

다. 국가 원수 부부를 체포해 구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제법적 논쟁을 떠나 국제사회가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미국은 스스로 국제 질서를 흔들어 놓고 이제 그 후폭풍을 동맹국들에게 함께 감당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 요구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한 국제 협력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적 긴장 지역 가운데 하나다. 이란과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는 곳이다. 이곳에 병력을 보내는 것은 단순한 해상 경비가 아니라 사실상 중동 분쟁에 발을 들이는 일이다.

한국의 상황은 더 복잡하다. 한국은 원유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동시에 이란과도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외교적 균형을 크게 흔들 수 있다.

무엇보다 안보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불과 며칠 전 북한은 대규모 미사일 시험을 실시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여전히 현재 진행

형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의 전력을 중동으로 보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동맹은 중요하다. 동맹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돕는 것은 국제정치에서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전제는 분명하다. 그 위험이 공동의 위협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의 상황은 그와 거리가 있다.

현재 중동의 긴장은 미국이 스스로 선택한 군사행동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더구나 그 충돌은 미국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멈출 수도 있는 사안이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자국의 안보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담긴 태도다.

그는 "열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맹은 열의 경쟁으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다. 압박과 협박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더욱 아니다. 동맹은 명령이 아니라 협의로 작동한다.

미국은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경찰'을 자처해 왔다. 때로는 그 힘이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

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모습은 과거와 분명히 다르다.

지금의 미국은 때로 거대한 힘을 쥔 어린아이처럼 보인다. 총동적으로 불을 지르고, 그 불이 번지자 주변 국가들에게 함께 끄자고 요구한다. 심지어 돕지 않으면 그 불이 너희 집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압박한다.

이런 방식으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동맹은 협박이 아니다. 한국 역시 냉정해야 한다. 동맹이라는 이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국익과 안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열의 경쟁'이 아니라 '냉정한 외교'다.

동맹이 협박으로 변하는 순간, 그 동맹은 이미 균열이 시작된 것이다.

사설

서남권 해상풍력 2.4GW, 에너지 전환의 분수령

최근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석유 수입이 막히면서 세계 경제가 요동치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북도가 서남권 해상풍력 1GW 규모의 확산단지2를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추가 지정받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다.

이는 전북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지정으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시범단지 0.4GW와 확산단지1 1GW, 그리고 확산단지2 1GW를 포함해 총 2.4GW 규모가 모두 집적화단지 체계 안에 편입됐다.

고장과 부안 해역 일대에 약 14조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로, 발전 용량만 놓고 보면 원전 2.4기에 맞먹는 수준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십만 가구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전략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자치단체가 직접 임지를 발굴하고 주민과 어업인, 지자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추가 가중치 REC 확보와 대규모 전력계통 선투자,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뒤따른다. 이번 지정은 그동안 전북도가 주민 수용성과 임지 발굴을 위해 기울여 온 노력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상풍력 산업은 단순히 전력 생산에

그치지 않는다. 터빈과 블레이드, 해저 케이블, 설치 선박, 유지보수 등 다양한 연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종합 산업이다.

대규모 단지가 조성되면 관련 기업과 기술, 인력이 모여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일자리와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크게 나타난다. 전북이 해상풍력 중심의 그린에너지 산업벨트를 구축한다면 지역산업 구조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새로운 성장 축이 될 수 있다.

다만 과도도 분명하다.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이 국방부 협의의 전제로 한 조건부라는 점이다. 해역 이용과 관련한 군사적 협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정부와 국방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해상풍력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어업인의 이해와 참여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수용성을 높이고 상생 모델을 만드는 일 역시 중요한 과제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2011년 정부의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 이후 실증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오랜 시간 준비되어 온 프로젝트다. 이번 집적화단지 완성은 그 긴 여정의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제부터는 사업시행자 선정과 전력계통 구축, 산업 생태계 조성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미래 산업이자 국가 경쟁력이다.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전북은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의 핵심 허브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지역과 국가의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이끌 이 프로젝트가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종황제 어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물, 일반회화, 초상화
지정일 - 2013년 5월 20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익산시 익산대로 460 (신동, 원광대학교)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10월 01일 창간 /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출판) 우) 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945-4113	군산시 010-8841-7942	무주지 010-6411-0835
부안지 010-7247-3947	중원지 010-9678-4271	남원지 010-2285-3987
임실지 010-8642-6502	고창지 010-2258-3734	인원지 010-8640-6855
익산지 010-9560-3075	진안지 010-2433-1721	완주지 010-3672-0308
팔백지 010-3015-4791	김제지 010-4572-6112	장수지 010-8626-6049
송천지 010-5242-3694	정읍지 010-2800-2934	순창지 010-5312-7293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매화를 찾아서 / 신경림

구름떼처럼 모인 사람들만 보고 돌아온다
광양 매화밭으로 매화를 보러 갔다가
매화는 덜 피어 보지 못하고
그래도 섬진강 거슬러 올라오는 밤차는 좋아
산허리와 들판에 묻은 달빛에 취해 조는데
차 안을 가득 메우는 짙은 매화향기 있어
둘러보니 차 안에는 반쯤 잠든 사람들뿐
살면서 사람들이 만드는 소음과 악취가
꿈과 달빛에 섞여 때로 만개한 매화보다도
더 짙은 향내가 되기도 하는 건지

시인 약력 : 1936년 충북 충주 출생. 동국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55년 '낮달', '갈대', '석상' 등의 시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이후 10년 동안 시를 쓰지 않다가 '원격지', '산음기행', '시제', '농무' 등을 발표했다.

시학 해설서인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를 출간하며 작고한 시인들과 생존 시인들을 만나기도 했다. 1973년 만해문학상, 1981년 한국문학작가상을 수상했다. 동국대학교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CO2

푸른하늘을 지키는 작은 실천

작은 실천이 늘어나면 큰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063)282-9601 신문구독 -063)282-9600

고창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안정적 진행'



고창, 新터미널조감도



고창 청년 창업농 스마트팜 단지조성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2022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 1항에 따라 도입한 자금으로, 10년간(2022년~20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한다. 고창군은 이 기금을 청년 주거 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핵심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고창군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현황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4년 평균 집행률 98% 달성 활력 넘치는 고창 만들기 속도

주거에서 출발하는 정주 구조 설계 고창군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거 분야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핵심 투자 분야로 설정하고 관련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혼부부 및 청년 보금자리 조성·지원 사업'은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과 연계해, 터미널 공영주차장 일원에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공동주택 210세대를 건립·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LH공사와 협력해 공동주택 설계를 추진 중으로, 향후 단계별 사업 추진을 통해 주거 부담 완화와 정주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

농업 분야, 청년농 정착 기반 조성

청년창업농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창형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사업으로, 청년창업농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스마트팜단지 조성이 80% 이상 완료됐으며, 오는 3월23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향후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자 모집과 운영을 통해 청년농업인 유입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2026년 이후, 체류형·정착형 사업으로 확장

고창군은 2026년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72억 원을 투입해 △청년들이 만든 제품을 판매하고 운영하는 공간으로 '팜파르 팜랜드' 조성 △농어촌유학 안전 거주시설 조성 △스마트팜 및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설 조성 중심에서 '인구 유입·정주·일자리'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추가되어 기존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방식과 달라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청년과 가족 단위 인구가 머물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창업과 연계한 생활인구 확대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과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분기별 집행 점검과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인구 구조 개선과 지역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사업 간 연계와 보완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최순필 고창군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다"며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소멸 대응기금 총 276억원을 확보해(2022년 60억원, 2023년 80억원, 2024년 64억원, 2025년 72억원) 2026년 2월 기준 271억원을 집행하며 집행률 98%를 달성했다. 이는 당초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예산 관리가 이뤄진 결과로, 전반적인 기금운용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고창군은 단순한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문화·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금을 운용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신혼부부 및 청년창업농 보금자리 조성·지원 △청년창업농 스마트팜단지 조성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 조성 △플로랜드 조성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은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주민 체감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머무름 이유'를 만드는 문화정주 전략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은 고창군 무장면 일원에 돌봄·휴식·문화·업무 기능을 복합화한 세대 연계형 생활거점을 만든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기금 25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이며, 현재 지상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공간은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는 물론,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플로랜드 조성사업'은 노동저수지, 고창읍성, 꽃정원을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 사업이다. 고창읍성부터 꽃정원까지 오솔길 조성과 노동저수지-꽃정원 간 보행데크 조성 등 기반시설을 완료했다.

제52회 모양성제(2025년10월31일~11월2일)와 연계해 꽃정원 축제를 개최해 약 5천여 명이 방문했고, 지역 화훼농가와 단체가 참여해 생활인

새롭게 시작하는 봄

소통하고 공감하며 행동하는 의회



의회 군산시의회